



# ‘올림픽 2관왕’ 기보배 27년 만에 활 내려놓는다

### 은퇴 기자회견... 인생 2막 양궁 대중화에 전념 “임신 중 판 국내대회 금메달, 올림픽만큼 값져”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양궁 2관왕에 올랐던 기보배(36)가 27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다. 기보배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처음 활을 잡은 뒤 27년 동안 이어온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기보배는 런던 올림픽에서 개인전, 단체전 2관왕을 달성하며 세계 정상에 올랐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여자 양궁의 대들보로 활약을 이어갔다.

2017년 결혼하고 출산한 뒤에도 현역 생활을 계속하던 기보배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린 지난해 국가대표에 복귀했으나 결국 활시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기보배는 양궁 세계선수권대회, 세계 양궁월드컵 파이널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37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땀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체육훈장 최고등급인 청룡장(1등급)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기보배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정상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스승님과 선수배, 동료에게 감사하다”며 “내가 떠난 빈자리는 든든한 후배들이 채워줄 것이다. 모교 후배 안산(광주여대)이 잘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올해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는 해설위원으로 현장에 서는 기보배는 “파리 올림픽에서는 준비한 대로만 한다면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새 역사를 쓸 것”이라고 믿음을 보였다.

기보배는 장혜진(은퇴)과 맞붙어 탈락했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인전 준결승전을 아쉬웠던 순간으로 꼽으며 “올림픽 개인전 2연패 문턱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봤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영광스러운 순간으로는 런던 올림픽 개인전 결승전 슛오프를 꼽으며 “양궁 인생의 반환점이 됐다.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뿌듯해했다.

기보배는 임신 2개월 차에 비를 맞으며 활시위를 당기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때 받은 국내대회 메달이 올림픽만큼이나 값진다”고 말했다.

가족의 헌신을 떠올린 기보배는 딸을 생각하면서는 울컥하기도 했다.

“딸은 응석을 부릴 나이에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했다”는 기보배는 “주말에만 만나서 엄마와 떨어져 기 싫다”며 평평 우는 아이의 고사리같은 손을 뿌리치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무한경쟁으로 인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너무 싫었다는 기보배는 다시 태어나도 양궁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예전에는 딸에게 절대 모든 스포츠를 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지만, 딸이 승부욕이 엄청나 뭘 해도 잘할 것 같다”며 딸의 꿈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기보배는 인생 2막을 양궁의 대중화에 전념할 생각이다.

한편 대한양궁협회는 은퇴를 선언한 기보배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기보배는 남편과 딸 등 가족이 제작한 선수생활 27년 기념 순금 27돈짜리 금메달을 받아보고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훨씬 무겁다”며 활짝 웃었다.

/연합뉴스

## 여자농구 박지수, 사상 첫 1~5R MVP 싹쓸이

### 평균 23.4점·리바운드 12.8개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청주 KB)가 여자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1~5라운드 최우수선수(MVP)를 휩쓸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4일 “우리는행 우리WON 2023-2024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flex 5라운드 MVP 기자단 투표 결과 총투표수 74표 중 68표를 얻은 박지수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박지수는 이로써 올해 1~5라운드 MVP를 석권했다.

박지수는 5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23.4점, 12.8리바운드로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최다를 기록했다.

박지수는 통산 라운드 MVP 선정 횟수에서도 18회로 최다를 기록 중이다. 이 부문 2위는 김단비(우리는행)와 신정자(은퇴)의 12회다.

심판부와 경기 운영 요원 투표로 정하는 기량발전상은 용인 삼성생명 키아나 스미스가 35표 중 22표를 획득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금은 MVP 200만원, 기량 발전상 100만원이다.



## 이상혁, 슬로바키아 높이뛰기 2m32로 시즌 첫 우승

### “2m37 계속 도전할 것”

‘스마일 점퍼’ 이상혁(27·용인시청)이 올해 두 번째로 출전한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이상혁은 14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에서 열린 제30회 반스카비스트리차 실내높이뛰기 대회에서 2m32를 넘어 우승했다.

우승을 확정된 뒤, 이상혁은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실내 2m36·실외 2m35) 경신을 위해 2m37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1~3차 시기에서 바를 건드렸다.

이날 경기는 2m05부터 시작했지만, 이상혁은 2m05, 2m10, 2m15를 패스하고 2m20에서 첫 점프를 했다. 2m20을 1차 시기에 넘은 이상혁은 2m24 1차 시기에서 바를 건드렸지만, 심호흡한 뒤 다시 도약해 2차 시기에서 성공했다.

2m28도 1차 시기에 넘은 이상혁은 2m32를 2차 시기에서 넘고, 우승을 확정했다.

2위 토비아스 포이테(28·독일)와 3위 울레 도로 시츠크(22·우크라이나)의 기록은 2m30이었다. 둘은 2m32의 벽에 막혔다.

시즌 첫 우승을 확정된 뒤 이상혁은 바를 2m37로 높였다.

자신이 보유한 한국 실내기록 2m36을 경신하고 싶다는 의지와 ‘파리 올림픽 우승을 향한 열망’이 담긴 것이다.

이상혁과 함께 유럽 훈련 중인 김도균 용인시청 감독은 “올해 이상혁에게 가장 중요한 대회는 파리 올림픽이다. 올림픽 우승을 노릴만한 경쟁력 있는 높이를 2m37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파리 올림픽 전까지 2m37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m37의 벽은 아직 넘지 못했다. 등으로 살짝 바를 건드려 2차 시기가 아쉬웠다.



이 경기를 중계한 유럽육상연맹 관계자는 “바와 몸의 거리가 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혁은 지난 11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높이뛰기 대회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러, 2m33으로 2위를 했다.

1위를 차지한 셀비 매규언(27·미국)의 기록도 2m33이었고, 2m33의 성공 시기도 3차 시기로 같았다.

하지만, 2m31을 이상혁은 2차 시기에서, 매규언은 1차 시기에서 성공해 순위가 같았다.

당시에 이상혁은 ‘순위 싸움’에 무게를 두지 않고, 2m33을 성공한 뒤 2m35가 아닌 2m37로 바를 높여 한국 신기록에 도전했다.

이날 이상혁은 한국 신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하며 시상대에 올라 활짝

웃었다. 이상혁은 2024년 세계 실내 시즌 기록 순위 공동 1위(2m33)에 올라 있기도 하다.

애초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 출전을 예고했던 ‘리얼’ 무타즈 에사 바르심(32·카타르)은 현재 독일 뮌헨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있어,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대신 남자 높이뛰기 세계 기록(2m45)을 보유한 하비에르 소토마요르(56·쿠바)와 ‘이상혁의 우상’ 스테판 홀름(47·스웨덴)이 경기장을 찾아, 이상혁이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상혁은 21일 체코 네흐비즈디에서 한 차례 더 실전을 치른 뒤 3월 3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2024 세계실내선수권에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MVP**

평균 23.4점, 리바운드 12.8개, 68표 득표, 5.8득점, 1.4리바운드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헝가
2관	헝가
3관	건국전쟁, 소풍
4관	시민덕희
5관	데드맨
6관	[위드키즈]DMZ 동물 특공대, 시민덕희
9관	도그데이즈
7관 씨네커플	아기상어 극장판: 사이렌 스톤의 비밀, 서울의 봄
8관 씨네커플	아기일, 스노우 퍼핀즈, 장인과 사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쿠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정송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